

영원과 지금(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는 법)(8)_청지기 비유를 통해 보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과 지금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법(눅16-1-13)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이미 와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여를 힘입어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으시고 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고 지켜보고 하시며 그 영광으로 이 시간 우리를 돕습니다. 그 고열이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운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그 영광으로 보시는 능력이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것이 바로 천국의 실재입니다. 성경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덧붙입니다. 온전히 그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도 의지도 내 계획도 내가 이 땅에서 땅을 사모하는 모든 마음도 다 내려놓으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불 같은 성령인 시간, 우리 마음을 태우며 온몸을 덮고 임하십니다. 타는데 뜨겁고 강하게 임합니다. 본능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를 덮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이 시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에서 끊어내시고 모든 놀림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하셨사오니 이 시간 안에서 온전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사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외된 백성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유혹으로 인식한 우리가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에 마음의 기름을 부으사 모든 가린 것을 눈의 비늘을 제거하시고 막힌 귀를 뚫으시며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하늘의 신령한복을 다 이 시간 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성 인도하심을 보게 하사울이의 자리를 깨닫고 그곳에 있는 내 삶의 내 존재 정체성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의 충만으로 나를 충만케 하셨사오니 내가 그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삶의 모든 형편을 다 진정한 자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성령으로 감동하사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나를 비추게 하지.

잊혀진 내 안에 옛것을 보며 애통할 때 온전히 보열로 찢어져 없어지고 거룩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다.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고 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시간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하시면 신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D Lilia 부흥의 영원과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본문에 청지기를 통해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데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가 하늘나라의 경제 법칙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적인 자유, 물질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법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매여 있는 부분이 물질이고 그다음에 질병이고 관계 안에서 많이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할 때 관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법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물질에 대한 자유의 법칙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에 가면 사회주의 경제학이 있죠. 공산주의 경제학이 있고요. 그렇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경제학이 있고 거기 아프리카에 고립되어 사는 동네에 가면 그 동네에도 또 경제학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천국에도 크게 있겠죠.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경제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죠.

있는 곳은 천국이죠. 그러면 이 땅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천국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천국의 법에 따라 사는 거라는 증거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천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에 갈 사람들이 아니죠. 천국은 와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면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죠. 천국은 이곳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왔다.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의 경제 법칙을 따라 살게 되고 그 천국의 경제 법칙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이 경제적인 자유, 물질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가 내가 천국의 법에 따라 사는가 아니면 이 땅의 법에 따라 사는가를 온몸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런가요? 공산주의에 가면 공산주의자처럼 살아야 맞잖아요. 공산주의 집단에 가서 나는 자본주의에 사는 것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죠? 뭔가 안 맞죠. 과격한 말씀들을, 잘 보세요. 오늘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중간중간에 부영회 때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청지기 비유는 성경, 정체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하면은 그게 구속 안에 있고 청지기 직분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경제학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조명할 수 있고 핵심원리 예를 우리가 쫓아가보면 이 땅에서 정확하게 누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읽는 건 생략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 13절 한 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집하이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어제 했던 6장 24절하고 똑같죠? 거기는 결론이 33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게 천국의 경제학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천국의 경제학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게 천국의 경제법칙이에요.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온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국의 경제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 막 사는 거하고 아마 비유가 비슷하지 않을까?

거기 가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큰일 나겠죠.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면 이 땅의 법대로 살면 큰일 안 나고 있는 게 좀 이상하죠. 큰일 나아 합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자 보시죠. 16절에. 위에 보면 15장에는 보면 이게 16장을 보는데 15장에는 이게 누가 나오죠? 탕자 나오죠. 탕자가 세상에서 막 살다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영생을 말하고 있죠. 그런가요? 여기 위에 31조를 보면 아버지가 이러되 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 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동생 탕자는 죽었다가 살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났으면 살아서 아무리 날뛰고 있어도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라고 장사하라고 그러죠.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간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죽은 자라는 것이고. 또 잃었다. 잃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거죠.

다시 찾았으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이 반지를 끼워주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결혼하는 관계를 말하고 그럴 때 내 것은 다 니끼다 이렇게 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16장에 또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영생 천국의 삶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 시대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소비를 허비한다. 이 어떤 부자는 누굴까요? 어제 나눴듯이 부한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그리고 부한자는 천국의 소유주, 이 땅의 소유주, 모든 만물의 소유주인 하나님 자신이죠. 그런가요?

하나님께 청지기가 하나 있대요. 청지기 어제 했던 거 기억나죠? 오이코노모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나도 집이고 이 땅도 집이죠. 이 땅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이불이다. 그런 말도 합시다만 피조물 전체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유 안에 거하시고 거하기 때문에 집이죠. 살고 있기 때문에 살고 계시면서 만유를 덮고 다스린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청지기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청지기고 교회가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는 자죠. 그런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는 자죠. 소유하는 자가 아니죠. 유산으로 받으면은 그게 마치 소유한 것 같은데, 이걸 유업을 받았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상속한 거예요. 상속한 거는 이미 내 거잖아요. 이미 내 거를 다시 가질 필요 있겠어요?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장 찍어놨는데 또 내 거라고 하면 이상하죠. 좀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내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를 잘 해야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청지기가 우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멋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천국의 경제 법칙이예요. 이해 가지쇼?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뭘 하나? 하나님의 소유를 허비한다고 누가 고발했어요? 제가 지금 멋대로 지 멋대로

합니다. 주님하고 누가 일러줬어요? 여러분도 일러주는 사람 있어요? 천사가 일러줘요. 아니 제가 밤마다 일러요. 주님이 이 집사 제멋대로 삽니다. 이렇게 밤마다 일러줘요. 어떡하면 좋지? 나를 미워할 텐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세계할 게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고 상속받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이걸 증가하고 계신가요? 오 늘은 그게 중요한가요? 우리는 이게 내용 다 압니다. 설교 아마 수백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완전한 물질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측면에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 잘 보시면 청지기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제 불러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법정에 딱 나왔어요. 니 뭐했노? 이렇게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집사를 꼬질렸어요. 하나님 이집사가 말이지요. 이러면서 꼬질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실직고 하렸다 이런 말이지요. 그렇죠? 가르데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민요. 너 보던 일을 셈하라. 너 보던 일 청지기 업무를 이제 낱알이 뭐 했는지 보고 하라.

겁나죠? 겁나지 않아요? 마지막 날 이럴 거라니까요. 내가 너에게 준 걸로 뭐 했지? 이렇게 심판대 앞에 갈 거예요. 뭐 했지? 그런가요? 물어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 이를 갈아라. 또 보던 일을 셈한다. 이 보던 일. 보던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교로서 해야 할 일이지요. 그 일은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나라는 존재부터 시작해서 나의 생명부터 내가 가진 것부터 나에게 맡겨진 모든 환경까지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라 했는데 그 일이 바로 보던 일이지요. 그 일은 뭘까요?

관리하는 일이지요. 관리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나옵니다. 세마라 정직위 사무를 계속 못하리라 하니 정직위가 속으로 집행을 안 했나 봐요. 속으로 무엇을 할꼬?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아이 갑갑하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나하고 어떻게 비슷한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탕자의 비유 다음으로, 나오잖아요. 탕자처럼 제멋대로 낭비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던 일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게 청지기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탕자처럼 제멋대로 사용하고 이제 불러온 거하고 똑같은 거죠. 멋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리면 바로 아웃이구나. 나는 먹고 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 갑갑한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번쩍하고 뭐가 떠오른 거예요? 번쩍 떠올른 거예요. 여러분도 번쩍 떠올라야 돼. 지금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가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저희하고 자기 집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고 영접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고 저희가 누군가요? 아래 나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알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려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래서 기름통 백말이 나오고 다음에 50이 나오고 밀백석이 나오고 80이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여 다 단감해져 버렸어요.

단감해져서 이거를 옳은 일이라고 하네요. 옳은 일 옳지 않은 자가 옳은 일을 했다. 지혜롭게 일을 잘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지껏 맡겨놓고 보통 멀리 떠나 있거든요. 제 멋대로 해

버린 거죠. 그게 바로 잘릴 일이에요. 잘릴.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빛을 다 탕감해 버렸으니 이걸 사실 옳은 일이 아니죠. 빛을 다 받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탕감해줘 버렸어. 그런데 그걸 옳은 일이라네. 지혜롭게 일을 했대네요. 그렇죠? 여러분도 빛바다로 다니면 다 탕감해줘 버리세요. 그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여기를 이제 보세요.

구절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스스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면 아까 앞에 표시한 저희가 여기 나오죠. 이 저희 그 다음에 자기 집 그게 영원한 처소고 그다음에 영접을 하는데 누구 청지기를 영접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한 일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고 해요. 그런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들이 불효하면 큰 것도 불효하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제한에 의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여기에 보면 이제 큰 것이 참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작은 것은 불의한 제물로 나오구요. 그러면서 너희가 남의 것에 이 남의 것이 드디어 작은 것이고. 불의한 제물이야.

그걸 결국 남의 것이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아서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의 것을 너에게 이게 다음엔 또 너의 것이라고 나옵니다. 참된 것이라고 하고 또 너의 것이라고 하고 큰 것이라고 나옵니다. 헛갈리죠. 헛갈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거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청지기가 이제 하인으로 나오죠. 하인으로 나오면서 두 주인을 섬긴다. 그러니까 마구 낭비한 것은 주인을 다른 주인을 섬긴 거라고 말해요. 이건 이제 심판의 대상이죠. 그런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태복 6장에서 나온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결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나오고 이 일단락이 되는데 저희와 자기의 집, 저희 집은 저희는 그들을 말하고 주인에게 빛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 집은 그들의 집 육적으로 보면은 이제 청지기가 찢릴 걸 예상하고 베풀죠 베풀니까 이제 잘리고 나면 그들에게 가서 폼사리 꺼서 대충 살 수 있지 않을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빛을 평생 갚아도 못 갚는데 딱 탕감해줘. 버렸어. 그러면 이제 잘려서 그 집에 가면 어떡하겠어? 우리와 같이 삽시다. 나에게 선을 베풀었으니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의 문자적인 해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적용했잖아요. 구절에 바로 영적으로 적용했죠. 그러면 저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치 있고 베풀고 섬긴 이웃이죠. 그게 저희예요. 맞네요. 그들이 왜 빛을 진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왜 빛진 자죠? 예수님의 핏값이죠. 생명의 빛을 졌는데 아직도 그걸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에 자신의 피로 생명을 죽어야 할 자의 죄를 다 사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샀으면 천국에 들어와야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멋대로 살고 있으니까 빛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걸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구한 거예요. 그걸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게 저의 바로 영적인 의미고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나야라는 이 존재 생명부터 시작해서 시간, 돈, 재능, 발란트 이런 것들이 한 단어로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걸 나를 위해서 탕자처럼 쓰지 않고 그렇게 쓰

다가 번쩍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번쩍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살았도다. 이게 지금 확 와닿아야 돼요. 나한테 이게 안 와닿으면은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제 어차피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제물, 남의 것, 하나님 것, 세상 것 이렇게 네 게 아니다.

작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작은 거. 왜요? 만물이 자기 것이니까. 70억 중에 내 하나 있으나 없으나 표시나 나겠어요? 예 백사장에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만큼도 안 되잖아요. 하나 없어봐요. 뭐 하나님은 눈이랑 꿈쩍하겠어요. 그렇죠? 정도로 작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표현했고 그게 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의 것이라고 한 거고, 그래서 그게 불의한 것이다. 라는 게 남의 것, 세상의 것,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여러분도 각자 맡긴 게 있죠. 많이 맡긴 사람도 있고 적게 맡긴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열 개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봐 버렸어요. 나를 위해서만 그냥 사용도 안 하고 물어봐 버렸어. 나를 위해서도 사용 안 하고. 혹시 그거 사용했다가 잘못 사용했다가 뒤질까 봐 딱 물어봐. 버렸어요. 주님 이대로 있으니까 가져가시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자식이 그렇게 살라고 준 게 아니다. 은행에라도 넣어놓지 이놈아 뭐 했어?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 놓은 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내 마음대로 할렐루야. 그게 바로 고발당한 청직이야. 지금 여러분은 지금 고발당했. 당한 가서 고발당해서 법정에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날 이렇게 될 거라고요.

저도 거기 앉아 있을 거고, 저도 받은 달란트를 사용 안 하고 물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밖에서 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은 달란트 받은 게 없죠.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달란트예요. 안에 그게 예수님이 준 생명이잖아. 그래서 살아있는 게 그게 달란트예요. 그래요. 그런데 살아있는 거 그것만 줬나요? 기름도 부어줬고 아까 10말 빗졌잖아. 10말 그 성형의 능력을 잔뜩 부어줬거든요. 거기 더 많이 받았는데 큰일 났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 여러분 이빠이 받았어요. 이빠이 이빠이 받았어요. 이빠이 받은 거 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고발당한 거예요.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걸 나만을 위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되는거예요. 그건 낭비죠.

낭비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지혜로운 거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게 뭐예요? 남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잖아. 빛진 자. 빛진 자가 누군가요? 그럼 우리도 빛이 있잖지만 세상이 잔뜩 있잖아.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야 되는 걸 말해요. 내 존재 자체를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청지기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친구를 사라고 그러니까 내 몸을 팔아서 친구를 살리라는 거예요. 내 가진 요만한 거라도 흘려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오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가지 있게 지혜롭게 사용한 걸 말해요.

그게 바로 사랑과 은혜를 입는 누군가가 되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아까 저희는 그 사람들이고 그러면 저희의 집은 어딘가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겠어요. 어서 오시오. 나와 함께 삽시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기 집의 영적인 의미는 이 육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들어갈 영원한 처소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 품안을 말해요. 우리는 이미 그 위에 앉아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가요? 이 땅의 재물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는 날이 직분을 뺏기는 날이에요. 이해 가지죠?

우리의 가진 것이 다 소비되고 물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누구한테 물려주고 가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물려줄까요? 하면 아멘 하면 물려주세요. 그리고 아니다 하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왜? 내게 그럼 내가 막 열심히 일해서 벌은 거 그거 내 거 아닌가? 내 게 아닙니다. 볼 수 있는 힘은 누가 줬는데 볼 수 있는 생명은 누가 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되게 어려운 건데 이제 말이 좀 돼요. 좋아어. 좋아요.

자,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재물 다 떨어져 나갈 그때에 우리가 세상의 재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열매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해 줄 거다 라는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요약해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에서의 재물, 나를 포함한 모든 것 그걸 지혜롭게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훗날에 하나님 나라의 집을 준비하는 자세로 이 땅에서 청지기처럼 살아야 한다. 라는 걸 예수님이 말하는 거고, 그게 지혜롭게 사용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것도 네 거다. 천국을 소유하라.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천국이 우리의 처수, 하늘 나라 제국 때는 우리의 처수가 될 거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교회 괜히 온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우리가 땀 흘려 본 것, 정당한 것, 물질까지도 불의하다고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게 왜 참된 재물과 대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죠? 맞나요? 그러니까 너희가 작은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 것으로 맡기겠느냐 이 작은 재물이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 이걸 말하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지죠. 맞나요?

도둑이 들거나 좀이 먹을 수도 있는 변화무쌍한 거죠. 그 대신에 영적인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 이것과 비교할 때 한시적이고 없어질 거라는 거를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땅에서 영원하지 않는 유한하고 썩어질 재물은 본질적으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고 재물이 가진 타락한 속성을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할 때 바로 재물이 가진 타락한 속성 만문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땀 흘려 번 돈까지도 불의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올바르게 쓰여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어떻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하여 쓰여진다는 거죠. 그게 그럴 때 바로 만문을 섬기는 것이 되고 불행

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유권을 착각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적법하게 벌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게 너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소유권 그게 이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거리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두 번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을 맘몬처럼 섬기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은 주님께 영광하고 전부 자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전부 자기 것처럼 알죠? 아니죠. 1도 내 게 아니예요. 웬지 아세요? 내 존재가 하나님 거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성경 구조를 갖다 대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노예가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 주인이 노예 건 따라 네 거다 이렇게 하나요? 주인 거죠. 노예가 내 건데 가진 건 다 내 거죠.

그래서 노예가 주인집에 가서 누군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것도 내 거. 그런가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는 잠시 내가 맡긴 걸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천국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전부 부정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그걸 소유하는 자가 아니고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래서 주인 것을 멋대로 쓴다 해서 고발당한 거죠. 이해하시죠? 그럼 우리가 가진 것 주인 거예요. 나도 주인 거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도 말하죠. 필요한 것만 믿으면은 그럼 누가 보면 16장의 건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빼버리면 예수님의 다리 하나를 빼버리고 믿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님이 여기서 마지막에 13절에 두 개를 절대로 같이 못 숨긴다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 숨기는 건 주인을 말하잖아요. 돈이 주인이 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라는 걸 철저히 알게 알지 못하면은 이게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지고 있는 것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의하다는 거죠. 이해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역설적으로 처방을 하죠.

가르침 아주 파격적이예요. 돈은 불의하고 위험하다 다 버려라 라고 하지 않아요. 불의해하는 더러운 걸 다 버리라고 버리라 하면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아니죠. 그 불의한 세상의 도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영원한 가치를 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처방이예요. 돈 자체는 이 땅에 속한 불효한 것이지만 그것을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면 그게 바로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걸 말하고 있고 이건 마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걸 잘 사용함을 통해서 천국에 가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율법이 되죠.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존재가 이미 천국에 안 치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맞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 맞는데 멋대로 살았다. 그래서 고발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차 하고 그때부터 천국의 존재처럼 사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위탁받은 거다. 그게 바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참된

거다. 남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의 것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로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것을 얻으려면 세상 재물을 무시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절대로 세상 선생님 재물을 다 버려버리고 나를 따르라.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렇게 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우리는 뭘 주실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배도 준다.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영원한 천국도 느끼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스린다. 이렇게까지 말했죠. 그걸 우리가 얻는 거예요. 다 버린 건가요? 그게 버린 게 아니고 사용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사명이 바로 큰 일이에요. 천국의. 그것을 우리가 소유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직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의 것이 이 땅의 재물과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말하죠. 그런가요?

세상의 재물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어야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각해야 될 게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다. 그래서 주인이 나오고 청지기가 나오고 주인 것을 지 멋대로 사용하는 청지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멋대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아차 하면 되는 거죠. 내 게 아니지. 깜빡했네. 갈 날이 며칠 안 남아도 괜찮아요.

깜빡했네. 주님 남은 찌꺼기 시간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 안에서 90년을 사는 것과 10년을 그렇게 사는 것 차이가 없어요.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딱 돌이키는 순간 영원 안에 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면 좋지. 예라 모르겠다. 이미 틀렸다. 10년이라도 내 멋대로 살다 가자 이러면은 이제 영원히 일을 가는 걸 말해요. 10년이 아니라 하루라도 똑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그러죠. 여기는 지금. 그래서 재물과 영생을 대비하고 있는 중이야. 앞에도 집 나간 탕자 자기 거 다 가지고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물려준 거.

그것과 영생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나면 바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리스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스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바리스인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 벌어서 제멋대로 쓰려고 착취도 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마치 그런 것 같다. 바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인가요? 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돈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철저히 깨달아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청지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똑바로 안 돼요. 여러분. 전부 다 신앙생활도 이 땅에서 내 재물을 쌓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죠. 여기 복타령이죠.

그러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스인들을 끄집어내서 거

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이야기 듣고 비웃어. 웃겨. 진짜 웃겨. 멍청한 인간 아니야?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예수님 15절에 예수께서 이랬을 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베풀고 자기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베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저히 했잖아요. 신앙생활 우리도 철저히 하죠. 여러분 철저히 하는 분만 여기 와 계시잖아요. 밤에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씩 오는 철저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비웃고 있는 거죠. 느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옳다 하는 거예요. 나는 흠도, 점도 티도 없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미움을 싸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 하나님이 미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진누가 이만큼 되겠어. 그러나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시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너희요.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돈입니다. 돈 앞에 열심히 신앙하는 이유는 돈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한 이유는 복, 이복 돈이잖아요. 그게 바로 직분을 망각 그러죠.

여기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 지혜라는 걸 예수님은 정의를 새롭게 했어요. 우리가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것 같지. 열심히 신앙 생활하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14절, 15절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많은 걸 소유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높이죠. 저 사람이 믿음 이 좋고. 그렇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내가 알아봤어. 복 받아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요? 여러분은 아니죠. 여러분은 바리새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예요. 맞아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맞느냐 우리는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가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안 맞다. 이렇게 살면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번쩍 떠 올라서 지혜로움 그게 지혜로움. 네 걸 마구 낭비해서 너를 위하여 낭비하지 말고 빛진 자에게 마구 낭비해버려라. 그걸 말해요. 그래서 거룩한 낭비. 우리는 나를 위해서 마구 낭비하죠.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고, 그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데 이 돈을 위하여 교회에 오셨으니 어떡하면 좋죠. 그래요. 지금 번쩍 아 이게 아니구나 라면서 깨달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애가 불행한 놈이 지혜롭게 했네 이게 지혜가 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 모든 시간을 종말론적인 시각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행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도덕 우리는 원래 부도덕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쌓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다가올 하나님날을 위해서 현재 일시적인 맡겨진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영 예수님이 성령님 임하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아까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처럼 사는

거고, 천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에 경제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준 모든 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흘러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의 핵심, 그 재물 바로 나. 라는 존재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의 핵심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팔아서 친구를 얻어라. 친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랬죠. 완복음 15장의 내 법을 지키는 자는 내 친구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바로 구절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재물을 영원한 것으로 치환. 하라 이런 뜻이에요. 친구들을 사귄다는 것은. 그러니까 재물을 사용해서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법 제1조죠. 하나님 사랑 이 사랑 그 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일한 법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천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릴 것이라는 걸 잔뜩 기도하고, 있겠죠. 기대.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파견받은 자 바로 청지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잘 보세요. 재물을 하늘에 쌓는 행위예요. 그게 재물을 하늘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으로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자원, 이 모든 것을 이웃의 죄와 고통을 덜어주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은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이미 있어요. 주제가 다 보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 그건 니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흘러보내서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얻게 해라 그러면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알잖아요. 이미 그래서 어디에다 사용해야 될지도 다 알잖아요.

그럼 내게 맡겨진 이 시간 소유물 전부를 내가 어디다 사용해야 될지는 여러분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멋대로 사용하면 이제 고발당해서 그 앞에 지금 지금 지금 내가 그 앞에 코람 되오 하나님 앞에 법정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 앞에서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기 전에 빨리 깨닫고 하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것, 세상적인 재물을 영원한 처소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해하시나요? 지금을 팔아 영원을 사라는 거예요. 그 영원을 현재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하나님인가요? 만문인가요? 여기도 재물로 나와 있는 단어가 만문이에요.

똑같이 어제도 태공 할 때 만문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주인이 재물인가요? 하나님인가요? 그걸 증명하는 건 간단하죠. 그렇죠? 내가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뻗기고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미래에 대해서 이게 나를 지켜줘야 하는데 없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사람이예요. 이해하시나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어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장고를 보고 불안감이 밀려든다. 그러면 만문을 섬기고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못 섬긴다. 이렇게 딱 못 박아놓은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가요? 하나님을 섬기는가요?

청지기가 왜 장고를 보고 걱정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장고잖아요. 거기까지 가져야 돼요. 그러죠. 돈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총입니까? 확실히 종입니까? 별별 떨면서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종이 누가 종인지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돈이 큰소리치죠. 그러면 큰 일 난다. 그렇죠? 더 벌어야지 어디서 놀고 있어? 주일날도 집에 가서 농사지어야지. 농사 어디 갔어? 농사. 농사지어야지. 오늘 오셨네. 다행히 돈이 주인이 아니네. 드디어 이런 거 아닌가요? 잔고가 부족하잖아. 밤새 알바 더 해야지.

그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채워놔야지. 어떻게 그렇게 겁나서 살고 내일 뭘 일이 일어날지 알아? 빨리 채워놔야지. 안전하지. 아멘 대회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교회 오는 시간도 반납해야지. 그게 돈의 주인이죠. 아멘. 그런가요? 비유의 결론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재물의 우상이 되는 신이 되는 거라는 거죠. 스님께서 만물을 너희가 섬기는 신이라고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는 만물이 주인이지 그 말을 말하라. 자요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가면 또 돈 때문에 별별 떨고 아이고 이 돈 없으면 내일 어떻게 살지? 막 별별 떨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우 이 돈 좀 가지고 있다가 자식들이 와서 훌쩍 가져가 보면 어떡하지? 싸우면 어떡하지? 이러잖아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그 안에서 영생을 사는 자와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의리죠. 그런가요? 이 성경 구조를 다시 재해석해보면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나와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그게 진정한 영적인 해석이에요. 청지기가 영리한 것은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차원이 땅에서 하늘로 이동하는 걸 말해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잘 해결하면 지혜로운 자로 착각하죠. 아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생존을 위한 집착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생존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아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속임수예요. 그게 바로 돈이 우리를 우리 목을 잡고 흔드는 방법이에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그거죠. 그런가요? 우리는 상속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처럼 있죠. 막 썼잖아요. 빛진 자에게 막 썼잖아요. 제멋대로.

그럼 하느님 그런데 제 멋대로 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썼다 그러잖아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뿔 올라와야 돼요. 그걸 우리도 네 멋대로 쓰면 되겠죠. 네 멋대로 쓰면 되겠죠. 빛진 자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을 했는데 멋대로 쓰되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만물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없어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권에 대한 관계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만물의 주인을 하나님이신다는 고백 그리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확신이 있으면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늘에 이미 속해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처럼 살아야 맞죠? 이 땅에.

지 멋대로 낭비하는 고발당한 청적이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고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것은 하나님이 사는 방식과 동일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 위에서 내려와서 보여줬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과 생명을 똑같이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사는 게 본능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 때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 안에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던가요? 소유하지 않았어요. 관리했지. 내가 쓰겠다. 하라 그러면 내 거잖아요. 우리도 내가 쓰겠다. 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일 때 그런 거죠. 바로 그걸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죠. 지혜로운 청지기가 맞죠. 예수님이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셨죠. 완벽하게 100%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늘에 앉히자고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 연합된 방식으로 우리도 그 똑같은 방식으로 연합대회 하나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는 거, 천국을 사는 거죠. 지구.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불의한 청정이가 재산을 과감하게 깎아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자기 게 아니니까. 아베. 그래서 내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필요 없는 사람에게 막 주면 안 되죠. 빛진 자에게만 주라는 거죠. 이해 가지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낌없이 내, 멋대로 서라. 바로 그게 소유권 이전이에요.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소비 방법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치가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큰 것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는 큰 것을 이미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사는 것처럼 산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가요? 세상제물은 지극히 작은 남의 것.

아니라는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내게 돼버려요. 이해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신인류. 맞나요? 죽어서 신인류가 아니고 지금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곧 우리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썸하는 날이에요. 잘리는 날이라고 그게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뜰지 모르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 청지기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나중에 나를 받아줄 큰 거 그거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사는 자는 곧 사라질 물질과 내 자신의 삶을 가지고 영원히 남아 있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산다 라는 영원한 관계 그게 처소예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걸 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원리. 거기에 합류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제학이에요. 그게 경륜이죠. 그런가요? 그걸 말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럼 함께하면 그게 그 자리가 지금 내 자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충만한 자리 아닌가요? 부자의 자리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만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와서. 중요한 개념이죠. 결국은 곧 사라질 내 존재를 가지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통치의 섭리 안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그분의 통치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지금 시간 안에서 영원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만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죠. 예수님이 만물에 메이드인가요? 누구한테 메이드인가요? 누군가 옆에서 이런 거. 그런 관계 안에 메이드인가요? 안 메입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물질로부터 관계로부터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메이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자유함의 원리예요. 원리 안매입니다. 물질에게 절대로 노예 안 됩니다.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절대로 노예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누구에게 안 매이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스림에 함께하고 있으면 매일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런 존재이잖아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처럼 존재로 살 때 안 매이죠. 당연히. 그래서 그게 영혼을 지금 사는 방법이고 아무에게도 어떠한 것에도 물질에게도 물질이 그래서 만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잡신에게도 절대로 종 노릇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렇게 살아서 거기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시겠어요? 이미 존재로 완성됐잖아요. 그걸 아시라고요? 그런 존재는 그렇게 살 때 제일 행복하고 자연스럽게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존재 자체의 삶을 온몸으로 증가하는 삶이죠. 그렇죠? 살아내어서 거기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으로 나는 거기에 속한 자라는 증거가 온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해 하시나요? 만물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동시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통치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다스리고 만물도 다스리고 둘 다 동시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걸 말하고 우리는 그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다. 그게 영생이예요. 영생. 이해하시죠? 주인의 통치방식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화예요. 현재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거룩한 낭비에 함께 가는 거죠. 그러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자들의 삶의 방식.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독으로 있을 때가 바로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게 천지기 의식이고 바로 이때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이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해 하시죠? 그때 바로 만물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전환되고 영생을 이 땅에서 영원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만물 안에 우리는 절대로 안 매입니다. 영원히 안 매입니다.

그래서 돈에 휘둘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

유 하나님이 누리는 자유 그 안에 있는 것 지금 이 땅에서 아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예요. 그게 엄청난 위업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거예요. 이게 안전한 역설이죠.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완전한 다스림을 얻는 거예요. 그런가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만몬에게 굴복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내가 소유를 해야 우리가 마음껏 다스릴 수 있다고 소리 지르죠. 만몬이 여러분 소유한 걸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던가요? 진짜로 있던가요?

오늘 요만큼만 써야지 하잖아요. 그걸 넘어서 팍 쓸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던가요? 어떤 것과 맞물려 있으면 못 써요. 이걸 쓰면 저게 확 뺏겨져. 그럼 쓸 수 있어요? 못 씁니다. 여러분. 다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죽어도 못 씁니다. 하나님의 법이예요. 그게 그렇게 못 쓰게 막 만들어 놔다니까요. 이 땅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그 정도는 똑똑해야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전도서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소유하면 마구 누릴 수 있다는 건 막의 노림수예요. 그게 속임수라고요. 막 소유하기 위해서 평생을 거기에 일생을 투자하고 수고와 슬픔 땀 뻘뻘 흘리며 살다가 죽어라. 라는 속임수예요. 그게 사도바울이 말했던. 그렇죠? 아닌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다 소유하고 누릴 수 있던가? 소유한 만큼 누리면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막 넘쳐올라서 요새 막 넘쳐가죠. 그러던가요? 넘쳐가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맨날 우는 소리 안 하던가요? 왜 그렇게 써? 이 화상아 그렇게 팍팍 써 버리면 어떡해. 그러면서 난리 나잖아요. 집에서 안 그래요. 그래서 그날 확 죽어버리면 그거 내가 다 모아놓고 다 누리고 다 쓴 건가요?

쓴 거 얼마나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거 보면은 여러분 쓴 거 얼마 안 돼 지금 쌓아놓은 게 훨씬 많죠. 그거 못 쓰고 가 죽어도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반대예요. 소유해서 쓰는 게 아니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거 다 쓰는 거라니까 그게 바로 이 지혜로운 청직이라는 게 지멋대로 썼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멋대로 하나님 뜻대로 멋대로 쓰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에게 짝 임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예요. 아시겠어요? 놀랍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붙들고 있을 때는 그걸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죠. 그게 바로 물질의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는 거예요. 집값 떨어지면 막 불나고 난리잖아요. 집 가진 분들 없나? 그러죠. 올랐어요.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할렐루야. 집값이 오를 10년 이상 가지고 있지 마세요.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후회합니다. 저 뭐야? 무당이야 보세요. 되나 안 되나 보세요. 더 쓰지 뭐 20년 그때는 가지고 있는 게 고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할 때는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목적에 맞게 부리는 지배자가 돼요.

그게 바로 천국의 경제 법칙이예요. 그런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 연합되어 있어서 지금을 영원을 지금으로 사는 거죠. 그런가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군가요? 만물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생 안으로 여러분 전환되어야 돼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

는 거죠. 재물은 끊임없이 너는 부족하다. 너는 더 싸야 안전하다. 그래야 내 안전이 보장된다. 이렇게 계속 말하죠. 옆에서 말 안 해줘도 매일 들려오잖아요. 아침에 잠잠이 안 해도 매일 그거는 24시간 들려오지 않아요. 꿈에서도 들려오죠.

더 해야지, 더 싸아야지 더 벌어야지 사기를 쳐서라도 이걸 쫓아내야지 막 이러면서 계속 안에서 들려오죠. 안들려와요. 잘 들리죠? 아멘 잘 들리는 거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죠? 나라 나라 나라 안 들리죠? 그건 네 거 아니다. 나라 나라 나라 그러면 막 이 새끼 미쳤나? 안 그래요? 그것도 잘 들려요. 아멘. 그래서 이 재물은 결핍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문을 섬긴다고 여기 딱 써놓은 거예요. 그게 지 멋대로 살던 청직이 얘기한 말이에요. 니가 만문을 섬겼다. 그리고 그 아래 바이스인들이 돈을 좋아하니 니가 만문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리스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믿는다 하면서 목표가 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부와 재물을 축적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만물을 섬긴 자다 하니까 웃어버리는 거예요. 웃어 그러는 거야. 없는 소리나 없는 놈들이나 하는 말이지. 무슨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아닌가요? 그러죠 여러분 어때요? 어떤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속한 종이 아니예요. 종이 새로운 종이잖아요. 신 인류. 그렇죠? 만문의 종은 미래의 불안을 담보로 현재를 희생시킵니다. 현재를. 자기 원하는 걸 취하도록 거기다가 확 쏟아넣게 만들어요. 그게 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이미 얻은 영생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면서 오늘을 막 살아요. 막 물질에 안 매이고 막 살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처하는 것 다 알아요. 그 비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지 아세요? 여러분? 물질에만 안 매여도 너무 행복한 것이래요. 그러지 않던가요? 물질이 안 매면 욕심도 없고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내일 뭘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 걱정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걸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바들바들 떨잖아요. 영생이 지금이라고요. 지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코인원이 그러면 만물과도 코이노니아 다 했잖아요. 만물과도 연합이 돼서 하늘이 땅에 땅이 만물에 만물이 우리에게 응답한다고요. 내가 쓰겠다. 응답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돈 좀 더 벌려고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흑 가는 게 좋아요. 후자가 훨씬 낫죠. 그래도 일단 한 번 더 해보고 싶지 않아요.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려보내는 그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 물질의 법칙 이 땅의 법칙을 거슬러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비로소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를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가요? 두 주인을 못 숨겨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만물을 모든 어떠한 관계도 나를 소유할 수 없다니 소유하고 부르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두 주인이잖아요. 하나님께 소유당하세요. 그러면 어떠한 것도 나를 종부리듯 못합니다. 그게 두 주인을 못 숨긴다는 뜻 아닌가요? 정확하게 그러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거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질에 노예가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다. 제4장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는

데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늘에 안치운 그 모습이에요.

그대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대로 살아야지 왜 빌빌하면서 묶여서 삽니까? 노예처럼 삽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제 이거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이게 이루어지는 거고, 에베소서 1장 말씀하고 이게 딱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만물을 통치하는 그 생명에 함께 공유 참여하는 자예요.

왜 만물을 소유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종속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만물이 내 상속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 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로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충만함으로 충만함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고 아까 에베소서 1장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머리가 되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만물 가운데 행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없이는 이 만물을 통치 안 한다니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영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게 부흥이 됐던 걸 오늘 심화한 거. 계속 말씀 우리는 만물 위에서 만물을 관통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만물 속에서 만물에 매여서 어쩔 줄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살린 거. 그거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수님이 엄청난 걸 주기 위해서 자신을 이 땅에 와서 죽이고 내 안에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이 땅에서 막 땅개미처럼 살아 봐요. 하나님이 어떠시겠나 여러분 생각이나 됩니까? 만물은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고. 그 중에 만물은 내 것이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만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만물에 묶인 자도 아니고 돈에 매인 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연결고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게 들어갈 때 우리는 만물을 막 부리면서도 매이지 않는 상태 아까 불의한 청지기가 멋대로 사용하는 거로 이게 바로 역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말한 충만이고 고린도 전서가 말하는 상속의 실체예요. 이게 실체라고요.

그래서 영생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다음에 확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통치의 부유함이 내게 그대로 그대로 전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그게.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인이에요. 그래야 안 그러면 바리스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키고 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쫓고 만물을 쫓고 그래서 결국은 만물이 매이는 거죠. 왜? 더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걸 위해서 일생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요만큼이라도 얻을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아니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만물을 소유한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만물

을 소유하면서 아까 천재 얘기처럼 막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예요. 만물을 지배하는 사람들 이지. 그게 노예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만물에 메인 사람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일체의 비밀을 다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서 그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능력으로 역사에서 그걸 어떻게 소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증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미 우리에게 상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런 사실이 노예들이 아니고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사느냐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지혜를 부르시고 계세형을 보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셔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제발 그거 좀 보라는 거예요. 그거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거 내 거라는 걸 좀 알고 살라라는 거예요. 종노를 그만하고 제발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물 속에서 만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만물을 바라보면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바라봄의 법칙에 속아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예요.

내 머리가 예수님이고 내 몸이 바로 예수님의 머리의 몸이 되어서 머리가 내 몸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예요.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더 나 별로만 받아 쓰고 소주와 함께 서로 살리려나 별린 정음은 내가 들어가 세상 입을 내려놓고 빛난 별만 받아 쓰고 서주아 합니다.

땅 하나 쓰고 소주와 함께 다스리 할 수가 시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기리던 지를 배우듯 다행히 드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간전히 주님께 고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임을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다스린 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스님께 고합니다.

1. 천국의 자유와 법칙

1-1. 천국의 경제 법칙과 자유

- 천국의 법칙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음
- 천국은 물질, 질병, 관계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곳임
- 천국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천국의 경제 자유를 얻는 증거임
-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에 천국의 법을 따라야 함

- (중요) 물질에 대한 자유의 법칙은 천국의 경제 법칙 중 하나임

1-2. 천국의 경제 법칙과 성경

-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의 법을 가르쳐 줌
- 천국의 법은 물질적 자유, 건강, 관계 문제를 포함함
- 천국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천국의 경제 자유를 얻는 방법임
- 천국은 이 땅에 오는 것이기에 천국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함
- 예수는 이미 천국으로 오셨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동안 천국의 법을 따라야 함

1-3. 천국의 법을 따르는 삶

- 천국의 법을 따르려면 온전한 자유와 자유로운 삶을 누려야 함
- 천국의 법은 생명으로서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비추게 함
- 천국의 법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줌
-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 삶의 모든 형편을 다스림
- 하나님의 충만으로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다스리게 하심

2. 천국의 경제법

2-1. 천국의 경제법 원리

- 천국에서 이 땅의 법대로 살면 큰일 나지 않음
- 땅에서 정확한 누리는 방법을 통해 물질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
- 성경에서 탕자는 죽었다가 살았으며, 하나님이 반지의 끼움을 받아 내 것을 다 그의 것임을 알려줌
-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라고 하며, 하나님이 다시 찾았으니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영생을 얻음
-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결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반지의 끼움을 얻음

2-2. 천국의 경제법과 이 땅의 법

- 예수님은 영생 천국의 삶을 제자들에게 알려줌
- 부자에게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다고 고발함
- 부자와 청지기는 모두 천국의 소유주이지만, 땅의 소유주인 하나님은 다스리지 않음
- 하나님은 피조물 전체를 다스리시며, 이를 청지기라 부름
- 우리는 청지기이며,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는 자임

2-3. 청지기로서의 삶

- 청지기인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이 땅에서의 삶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함
- 탕자는 보던 일을 셈하여 불러오고, 하나님은 이를 보고서 책망하심
- 우리는 청지기로서 해야 할 일, 즉 관리하는 일이 있음
- 보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 나의 생명, 내게 맡겨진 환경을 관리하는 것임
- (중요) 탕자가 보던 일을 셈하여 불러온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보던 일을 사 용해야 함

3. 청지기 사명

3-1. 하나님의 뜻과 소명

- 청지기,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한 분이 예수님이심
- 자신의 재물과 소유물을 나누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함
- 재물은 탕감받은 것, 집은 자신이 섬긴 것임
- 빛진 자를 탕감받은 주인, 험건한 청지기를 칭찬함
- (중요) 지혜로운 일은, 빛을 탕감받아 자기 소유로 삼는 것임

3-2. 주인과 청지기

- 청지기는 주인에게 영접될 준비를 마친 상태임
- 청지기는 자신의 집을 주인에게 표시하고, 주인은 이를 받아들임
- 청지기는 주인에게 자신의 재물과 소유물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포함
- 주인은 자신의 재물과 집을 영접하고, 청지기는 자기 집을 헤아려짐
-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하고, 자신의 소유가 된 것에 만족함

3-3. 주인의 결론

- 주인은 자신의 재물과 집을 영접하는 청지기를 칭찬함
- 청지기를 주인에게 영접시키는 것은 큰일이지만, 지혜로운 일임
- 하나님은 청지기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심
-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고, 자신을 변화시킴
- 청지기는 자신의 존재와 소명을 주인에게 드러내고, 큰일을 감당함

4. 하나님의 재물관

4-1. 천국 소유와 섬김

-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한 것을 사랑과 은혜로 여김
-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작은 것이라도 지혜롭게 사용해 이웃을 섬김으로써 천국의 집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짐
-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집을 준비하는 자세로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가르치심
-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해야 함
-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잘 사용함으로써 천국에 가기를 원하심

4-2. 불의한 재물

- 예수님은 재물이 가진 타락한 속성을 알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지적 하심
- 땅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사라지며, 유한하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 이라고 표현하심
- 우리가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음
-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함

4-3. 참된 재물

- 예수님은 돈이 불의하고 위험하여 다 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심
- 돈은 이 땅에 속한 불의한 것이지만, 그것을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면 천국으로 영접할 수 있음
- 예수님은 참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재물을 무시하고 참된 것을 얻으라고 가르치심
- (중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때, 진정으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심

5. 천국의 재물

5-1. 영적 사명

-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재물과 삶을 테스트하심
-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함을 강조함
- 재물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주인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함을 깨달아야 함
- 우리는 천국의 소유물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함
- (중요)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만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능력이 생김

5-2.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

-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여, 돈을 벌어서도 착취하고 섬기지 않음
-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그들의 신앙생활은 돈에 집중됨
- 예수님은 철저히 믿음을 생활을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영적 자세는 미움받음
-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으면, 진노와 심판이 임함
-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돈과 지혜를 추구하는 제멋대로 된 것임

5-3. 천국의 재물 사용

-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재물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함을 말씀하심
-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천국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음
- 우리가 받은 재물은 천국의 소유물이므로, 내 것을 팔아 친구를 사귄 수 있음
-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사랑과 이웃을 돌보심
-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를 전하는 파견받은 자임

6. 주인의 재물

6-1. 하나님께 받은 은혜

-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으로 빚을 탕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자원을 이웃의 죄와 고통을 덜어주는 데 사용해야 함
-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내야 하는 대상은 이웃의 고통받는 것임
- 이웃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함

- 내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
- (중요) 법정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리라 하기 전에, 미리 깨닫고 행해야 함

6-2. 재물의 소유자

- 우리는 돈을 주인으로 삼아야 함
- 재물이 우리 주인인 경우,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짐
-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재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임
-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물이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함
-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함

6-3. 지혜로운 삶

- 지혜로운 삶을 위해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중요함
-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사람은 생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함
- 우리는 상속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들이기에, 재물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의 문제임
- 만물은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사용해야 함
- 예수는 소유하지 않고 관리하심

7. 지혜로운 소비

7-1. 지혜로운 소비 방식

-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써 큰 것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소비 방식임
- 우리는 이미 큰 것을 가진 자이기에 작은 것을 큰 것과 교환하는 것으로 삼아야 함
- 죽어서 신인류가 아닌, 더 큰 것을 사려는 방식으로 살아감
- 우리가 샀다는 것은 가치가 완전히 바뀐 것임
- (중요) 영생을 사는 자는 사라질 물질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삼음

7-2. 하나님의 통치

-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원리에 합류함으로써 하나님의 경제학을 이룸
- 우리는 만물 안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동시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됨
- 우리는 물질, 관계, 타인에게 매이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 다스리는 통치자로 살아감
-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서, 이미 만물에 존재하여 거룩한 낭비에 영생을 소유하게 됨
- 예수님이 만물에 당신 되셨듯,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됨

7-3. 주인의 통치

-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다스리지 못함
-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 우리는 이미 하나님처럼 존재되어, 영생을 사는 방식으로 살아감
- 만물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동시에 받음
- 하나님의 통치에 동조될 때, 우리는 물질과 관계, 타인에게 매이지 않음

8. 물질과 영생

8-1. 집값의 중요성

- 집값이 오르면 집 가진 사람들은 후회하게 됨
- 10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음
- 집값이 오르면 집값이 종이 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물질에 휘둘리지 않아야 함
- 천국의 경제 법칙은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목적에 맞게 부리는 지배자임
-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는 상태가 영생임

8-2. 만물에 대한 신뢰

-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만물에 결박된 상태에서 영생으로 전환되어야 함
- 재물은 끊임없이 부족하고 더 쌓아야 함
- 하나님 말씀은 들어주지 않으나, 영생을 믿고 만물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함
- 돈을 추구하며 만물을 섬긴 것은 만물을 섬긴 것임
- 바리스인들은 돈을 목표로 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이스인들을 설득함

8-3. 만물의 소유

-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속한 종이 아닌 신인류이며, 미래의 불안을 담보로 현재를 희생시킴
- 하나님은 이미 얻은 영생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물질에 매이지 않음
- 우리는 물질에 매이지 않으면 욕심도, 시기 질투도, 두려울 것도 없어짐
- 영생은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이며,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짐
- (중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모든 관계를 소유할 수 없음

9.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명

9-1.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명 이해

-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
- 바리스인(돈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형태를 취하지 않아야 함
- 형식적으로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키면서 속으로는 돈을 좇으면 안됨
- (중요) 우리가 만물을 소유한 그분 안에 있는 사람임을 인지해야 함
-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을 소유하면서 막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

9-2. 성령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

- 바울은 일체의 비밀을 알게 하여 우리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해 성령을 이용함
- 우리는 그저 그런 지식이 노예들이 아니고,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함
-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능력으로 역사하며,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게 해야 함
- (중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만물 속에서 살아가기 보다 만물을 지배해야 함
-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함

9-3.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결단

- 그리스도인의 삶은 땅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만물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함
-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세상에 내려놓고 별만 받아 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님
- (중요)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야 함
- 만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함
-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 역사하므로, 모든 곳이 천국이 되어야 함